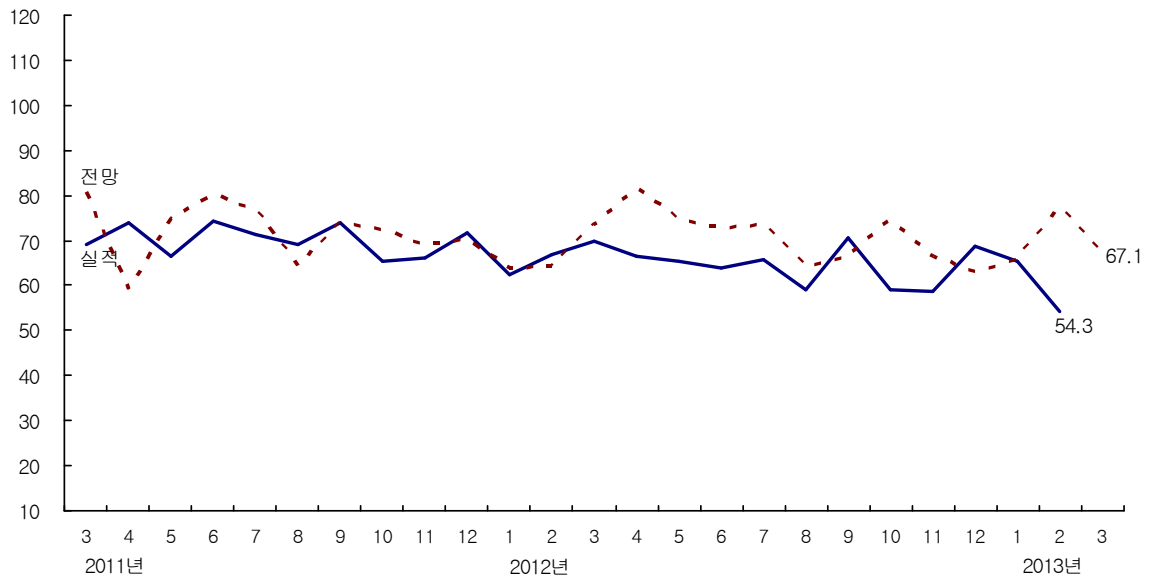


2013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월 CBSI 11.1p 하락한 54.3 기록
30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2013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1p 하락한 54.3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지난 1월(전월비 3.5p 하락)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2010년 8월의 50.1 이후 3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
- CBSI는 1월에 이어 통상 2월에도 흑한기가 지속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올 2월에는 1월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음.
- 뿐만 아니라 1월 조사시 2월 CBSI 전망치가 77.2를 기록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 2월 CBSI 실적치가 이에 훨씬 못 미친 54.3을 기록함.
- 이는 흑한기로 인한 계절적 요인이 CBSI 회복을 제약한 가운데, 한 일건설, 동보주택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크게 위축시킨 결과로 보임.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또한, 2월 자금 관련 지수가 크게 악화된 것을 볼 때 몇몇 건설사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 역시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10p 이상 크게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1월에 전월비 7.2p 하락하며 85.7을 기록했는데, 2월에도 전월비 13.0p나 하락한 72.7을 기록해 작년 4월(7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무려 18.7p나 하락해 48.0을 기록했으며, 2008년 10월(전월비 26.6p 하락한 17.9 기록) 이후 4년 4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함.
 - 다수의 중견업체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월 한일건설, 동보주택건설 등 중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진 결과

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40.0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2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6.4	65.4	63.8	65.7	59.0	70.6	58.9	58.7	68.9	65.4	54.3	77.2	67.1
규모 별	대형	71.4	92.3	92.9	92.9	80.0	91.7	76.9	78.6	92.9	85.7	72.7	92.9	72.7
	중견	72.0	58.3	50.0	56.0	46.2	61.5	57.7	55.6	64.0	66.7	48.0	76.9	58.3
	중소	54.1	41.8	45.6	44.8	49.1	56.4	39.3	38.9	46.3	40.0	40.0	59.3	70.4
지역 별	서울	74.1	74.9	72.1	79.4	63.8	80.5	69.9	69.6	79.3	76.2	63.6	81.9	67.6
	지방	54.9	53.6	51.0	45.2	51.6	56.5	43.2	42.5	52.1	49.0	41.8	70.0	66.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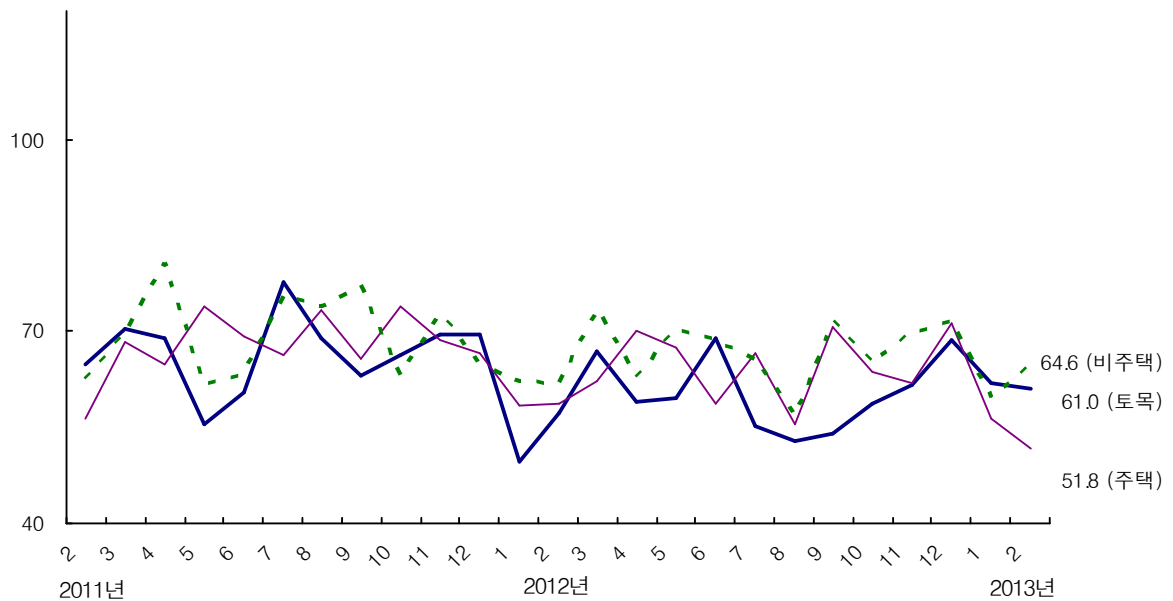
- 한편, 2013년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2.8p 상승한 67.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그만큼 3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3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2월 CBSI가 매우 낮은 기저효과도 반영되어 2월 실적치 대비 3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발표를 비롯해 건설사들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가지는 정책 변화의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지역별로 2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12.6p 하락하였으며, 지방업체도 7.2p 하락함. 서울과 지방 모두 최근 3~4년 내 가장 부진한 수치로 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2.6p 하락한 63.6을 기록해 30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2월 실적으로는 지난 2009년 2월 50.0 이후 4년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지방업체 지수 또한, 전월 대비 7.2p 하락한 41.8을 기록, 지난 2008년 12월 31.6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 한편, 2013년 3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2월보다 4.0p 상승한 67.6로, 지방은 24.9p 증가한 66.7로 전망함.
- 전망하는 지수 상승폭이 서울보다는 지방업체가 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서울 보다는 지방업체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2월 공사 물량지수 지난 전월보다 7.0p 감소한 59.6기록

- 2013년 2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0p 감소한 59.6을 기록, 건설업체의 공사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물량지수는 지난 2012년 12월 전월 대비 12.6p 증가한 74.4를 기록, 6개월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그러나, 올 1월 들어서면서 다시 7.8p 하락하였으며 2월에도 7.0p 감소해 60선 이하인 59.6으로 떨어짐.
 - 통상 2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5~10p 정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올 2월에는 지수가 7.0p나 하락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지수 자체도 2월 실적으로는 전체 공사물량 지수가 작성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9.6를 기록, 업체들의 공사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비주택 지수만이 전월보다 5.1p 상승했을 뿐, 나머지 주택과 토목 물량은 각각 전월 대비 4.4p, 1.0p 하락해 지수가 더욱 악화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5.1p 상승한 64.6을 기록해 공종별로는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그러나, 지수가 60선 초반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가운데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4.4p 하락한 51.8로 지난 2009년 8월 46.9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 상황을 대변함.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2012년 10~12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올 1월 다시 6.6p 하락한 62.0을 기록하였으며 2월에도 1.0p 하락한 61.0으로 부진한 상황을 지속함.
- 업체 규모별로 중소기업체가 전월 대비 7.9p 상승한 반면, 대형과 중견업체 물량지수가 각각 13.0p, 14.1p 감소해 부진하였음.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3.0p 감소한 72.7로 2월 수치로는 지난 2009년 2월 66.7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임. 비주택 물량 지수가 전월 보다 3.2p 증가한 81.8로 다소 양호했으나, 주택이 63.6으로 매우

부진하였으며 토목 또한 72.7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4.1p 감소, 대형업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2월 실적으로는 지난 2009년 2월 5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0.0을 기록함. 비주택 물량 지수가 70.8로 다른 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토목이 66.7로 부진하였으며, 주택이 50.0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9.6	72.7	60.0	43.6	63.6	54.1
	전망	66.3	72.7	62.5	63.0	65.0	67.9
토목	실적	61.0	72.7	66.7	40.7	70.1	48.8
	전망	68.1	72.7	69.6	61.1	66.7	69.8
주택	실적	51.8	63.6	50.0	40.0	53.2	50.1
	전망	64.7	70.0	62.5	60.9	63.2	66.6
비주택	실적	64.6	81.8	70.8	37.3	66.8	62.9
	전망	72.7	81.8	77.3	56.9	70.6	77.4

주 : 실적은 2013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지난 1월 지수가 35.7에 불과하였는데, 2월에는 이보다 7.9p 상승한 43.6을 기록함. 공종별로 모든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하였는데, 토목이 10.9p 상승한 40.7을, 주택이 12.3p 상승한 40.0을, 비주택이 4.0p 상승한 37.3을 각각 기록함.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15.9p 급감한데 반해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6.9p 상승해 지수가 일부 개선되었음.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63.6으로, 2월 지수로는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비주택 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66.8을 기록한 가운데 토목이 전월보다 6.9p 하락한 70.1를, 주택이 13.7p 급감한 53.2를 기록해 주택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6.9p 상승한 54.1을 기록함. 토목이 전월보다 9.2p 상승한 48.8을,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전월보다 10.8p, 14.5p 상승한 62.9, 50.1을 각각 기록해 지수가 모두 전월보다 개선됨.
- 2013년 3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2월 실적치보다 6.7p 상승한 66.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통상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면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대략 3~5p 정도 상승함.
 - 2월 수준이 60선 미만으로 낮은 상황으로 지수 상승폭은 평년보단 다소 높은 수준임. 그러나, 통상 3월 지수가 70선을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는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8.1, 72.7로 60선 후반에서 70선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주택 물량지수는 64.7로 60선 초반에 불과해 주택 물량 상황이 여전히 타 공종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 관련 상황에 매우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 관련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9.0, 95.8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8, 81.0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0.1, 66.3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70.1	90.9	56.0	61.8	80.0	56.7
		전망	72.9	90.9	58.3	68.5	75.6	69.2
	자금조달	실적	66.3	81.8	56.0	60.0	68.2	63.8
		전망	70.0	81.8	62.5	64.8	70.0	69.8
인력	수급	실적	99.0	109.1	96.0	90.7	104.2	92.1
		전망	94.3	100.0	91.7	90.7	95.8	92.1
	인건비	실적	85.8	100.0	88.0	66.7	93.3	75.7
		전망	87.0	100.0	83.3	75.9	91.4	80.9
자재	수급	실적	95.8	109.1	88.0	89.1	100.3	89.7
		전망	94.6	109.1	83.3	90.6	99.8	87.3
	비용	실적	81.0	100.0	80.0	60.0	88.5	70.9
		전망	82.5	100.0	75.0	70.4	90.4	71.8

주 : 실적은 2013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

끝.